

한국 단편 베스트

[한국] 리효석 외 지음



한국 단편 베스트

[한국] 리효석 외 지음



홍익인간 출판사
조선민원

2013 · 할 빈

黑版贸审字 08-2013-115 号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短篇小说精选 : 朝鲜文 / (韩) 李孝石等著 ;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朝文编辑室改写. — 哈尔滨 : 黑
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3. 11
ISBN 978-7-5389-1962-2

I. ①韩… II. ①李… ②黑… III. ①短篇小说—小
说集—韩国—现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312.64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13)第 276372 号

书 名	/ 韩国短篇小说精选
著 者	/ [韩] 李孝石等
责任编辑	/ 朱梅花
责任校对	/ 宋英爱
封面设计	/ 李光吉
出版发行	/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 0451-57364224
电子信箱	/ hcxmz@126.com
网络出版 支持单位	/ 东北网络台 (www.dbw.cn)
印 刷	/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 640mm×960mm 1/16
印 张	/ 9.25
字 数	/ 77 千字
版 次	/ 2013 年 11 月第 1 版
印 次	/ 2013 年 11 月第 1 次印刷
书 号	/ ISBN 978-7-5389-1962-2 (民文)
定 价	/ 17.00 元

머리말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고약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단편소설들은 제목만 대도 줄거리를 줄 줄 이야기할수 있지만 한국작가가 쓴 단편소설은 제목조차 잘 모르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한국단편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읽을 엄두를 내지 않아서일것입니다. 그러나 글이 씌여진 배경과 지식을 조금만 갖추고 읽다보면 쉽게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과 행동, 생활풍습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한국단편베스트》는 20세기초에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 가운데 이효석, 김유정, 현진건, 라도향, 전영택, 등의 작품을 모아 구성한 책입니다.

이분들의 서로 다른 작품을 통해 오늘과 다른 우리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만나보고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으면 합니다.

여기서 잠깐!

1. 원문을 그대로 살려 원작 고유의 문체나 어투, 당시의 영어 등은 살리되 지금 잘 쓰고있지 않은 말은 지금 쓰고있는 말로 바꾸고 중국조선어맞춤법에 따라 수정편찬하였습니다.
2. 한자어 사투리 등 리해를 하는데 어려운 말은 풀이를 달아서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메밀꽃 필무렵



리호석(1907-1942)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호는 가산.

“도시와 유령”, “행진곡”, “노령근해” 등 초기작품에서는 하층민들의 가난한 삶의 모습을 많이 그렸으나 “돈”, “산”, “들”, “메밀꽃 필무렵” 등의 후기작품에서는 서정적자연묘사를 보여주는 작품을 썼다.

“메밀꽃 필무렵”은 한국현대 단편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작품 전체에 시적정서가 흐르는 산뜻하고도 애절한 명작소설이다.

메밀꽃 필 무렵

여름장이란 애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해발이 벌여놓은 전(물건을 벌여놓고 파는 가게) 휘장밑으로 등줄기를 훌훌 뉘는다. 마을사람들은 거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군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기마리나 사면 족할이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있을 법은 없다. 찹찹스럽게(더럽고 렴치없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군 각다귀(모양은 모기와 비슷하나 크기는 더 큰 곤충. 여기서는 성가시도록 장난이 심한 아이들을 말한다)들도 귀찮다. 얇음뱅이(얼굴이 얇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곰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예전에 온갖 옷감을 팔던 가게)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선달을 낚아보았다.

“그만 거둘가?”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 있었을가. 래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렸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번 돈을 따지는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여 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필과 주단바리가 고리짝에 꼭 찼다. 명석우에는 천쫂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의 전들을 걷고있었다. 약삭바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장사도 땀쟁이도 엇장수도 생강장사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래일은 진부와 대화에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며 룡칠십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된다. 장판은 잔치뒤 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있었다. 주정군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소리로 시작되는것이다.

“생원, 시침을 떼두 다 아네... 충주집 말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화중지병(그림의 떡)이지. 년소패(나이가 어린 패)들



을 적수로 하구야 대거리(맞서서 대툼)가 돼야 말이지.”

“그렇지두 았을걸. 축들이 사족을 못 쓰는것두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구 해두 왜 그 동이 말일세. 감쪽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무어 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고 낚았나부지. 착실한 녀석인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수 있나... 궁리 말구 가보세나그려. 내 한턱 씌세.”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엷음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여 설 숯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주집을 생각만해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뭇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충주집 문에 들어서서 술좌석에서 짜장(과연, 정말로)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이 오르는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상우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룡탕치는것을 보고서야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군(술과 녀자에 빠져 방탕하게 놀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쳐먹고 계집과 룡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이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듯이 뻘뻘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칠 때 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배길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껍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얼굴색이 변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대로는 다 지껄였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게도 아비 어민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맘 좋겠다. 장사

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야, 나가거라. 냉큼 꿀 치워.”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가 하고 마음이 섬뜩해졌다.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을 낳게 되는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셀것은 무어야 원.”

충주집은 입술은 쭈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송이를 빨면 죄 된다.”

한참 법석을 친후이다. 담도 생긴데다가 웬 일인지 흠뻑 취해보고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거나해짐을 따라 계집의 생각보다도 동이의 뒤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이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간것이였다.

“생원, 당나귀가 바(삼이나 칠 따위로 세가닥을 꼬아

굵다랗게 드린 줄)를 끊고 야단이에요.”

“각다귀들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이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달음질하려니 거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것 같다.

“부락스런(말을 듣지 않고 영악스럽다) 녀석들이라 어찌는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을 그냥두지 않을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이십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가스러진 목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라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쓸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닳아없어진 굽을 몇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닳아버린 철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코물이 튀었다. 아



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 뻘 땀뿔어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체 흥분이 식지 않은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몸쓸 자식들, 하고 허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줄행랑을 논 뒤요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비슬비슬 떨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우.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흘리개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고녀석 말투가...”

“김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

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 꼴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우.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앵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생원은 모르는 곁에 낮이 뜨거워졌다. 뭇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앞을 가리어 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야. 저놈의 짐승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주춤하면서 기어이 견딜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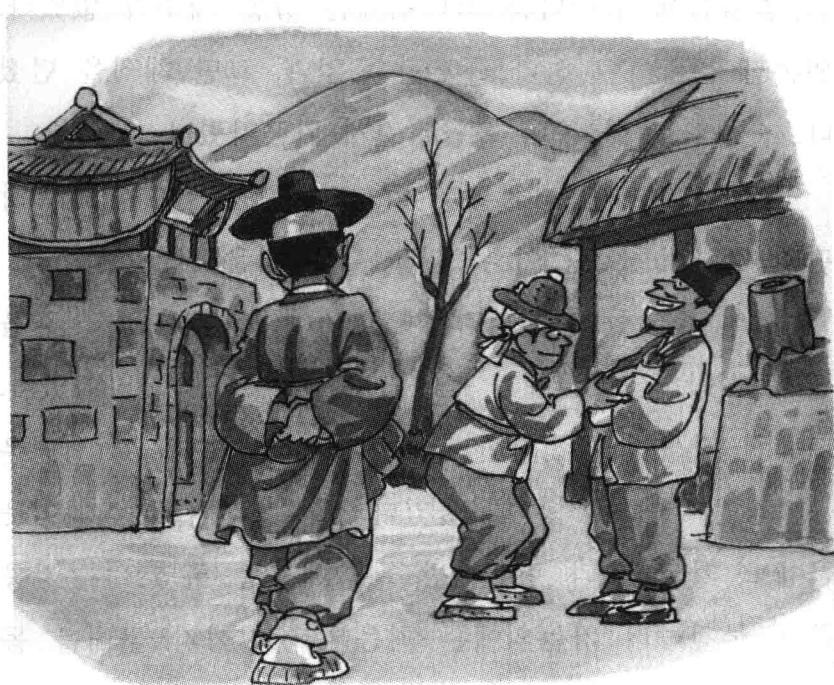
줄달음에 달아나는 각다귀에는 당할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귀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것들인걸.”

조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드팀전 장돌림을 시작한지 이십년이나 되여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지방도 해매기는 하였으나 강릉 쪽에 물건하러 가는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كم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먼

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두벽두벽 걷고 장터있는 마을에 거의 가까왔을 때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여서 등불들이 어둠속에서 깜박거릴무렵이면 늘 당하는것이건만 허생원은 변치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 아미타불로 장돌림을 다시 시작할수 밖에는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것이였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념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였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것이였다. 평생 인연이 없는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번의 첫 일을 잊을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였으나 그것을 생각할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였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두 도무지 알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것

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대로는 되풀이하고야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졌으나 보름이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있다. 대화까지는 팔십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무렵인지 죽은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여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째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이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